

## 『說文解字』 540部首의 形相·義相 系聯 考察(1)

- 「卷一」 14部首를 대상으로

김태완\*

### 【목 차】

1. 序論
2. 許慎의 部首
  - 1) 部首 설정의 배경
  - 2) 部首가 540개인 이유
3. 「卷1」 14개 部首의 系聯
4. 小結

### 【초록】

『說文解字』는 字典이다. 자전은 결국 특정 글자의 검색을 위한 글자들의 집합이다. 이는 곧 자전을 이용하는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필연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許慎은 9,353개의 글자를 1차적으로 540개의 주제별로 모듬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곧 部首다. 2차적으로는 이 540개라는 많은 부수의 순서를 정하는 것인데, 결코 쉽지 않은 난제였다. 그가 택한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形體에 근거하여 순차적으로 부수들을 배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형체만으로는 540개를 잇기에 완벽하지 않기에 형체에 意味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부수를 배열하였다. 곧 據形系聯과 共理相貫이라는 기준이다. 清代의 段玉裁는 이를 形相次와 義相次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설문』 권1의 14개 부수를 대상으로 形相과 義相을 세밀히 분석하였다. 그래서 각각의 부수들이 어떻게 계련 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키워드】 『說文解字』, 部首, 據形系聯, 共理相貫, 形相次, 義相次

\* 김태완.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lomloy@jnu.ac.kr)

## 1. 序論

‘部首’라는 명칭은 『說文解字』(이하 『설문』으로 간칭)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다. 『설문』에서는 부수를 ‘首’라 하였으나, 청대에 ‘部’와 ‘首’가 합쳐져서 ‘部首’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설문』 부수의 체계는 部類로서의 ‘部’와 部首로서의 ‘首’, 그리고 그 소속자들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漢代 許慎이 한자 검색의 방법으로 처음 개발한 이 部首法은 『설문』이 수록하고 있는 9,353자를 검색하기 위해 540개의 부수라는 ‘링크’를 거쳐 그 링크가 연계하는 해당 글자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다만, 540개의 부수는 9,353자를 검색하기에는 『康熙字典』(1716)의 47,035자에 해당하는 214개의 부수에 비해 부수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sup>1)</sup> 다시 말해 허신은 이 540개라는 적지 않은 부수를 설정하고 나서 다시금 부수의 배열과 순서라는 문제에 봉착하였을 것이고, 이른바 系聯法으로 그 문제를 풀고자 하였다.<sup>2)</sup>

‘系聯’이라는 용어는 『說文』의 第十五下에 ‘序曰’로 시작하는 이른바 ‘後序’에 보인다. 다음과 같다.

敘曰：此十四篇<sup>3)</sup>，五百四十部，九千三百五十三文，重一千一百六十三，解說凡十三萬三千四百四十一字。其建首也，立一爲端(端)。方以類聚，物以群分。同牽條屬，共理相貫。雜而不越，據形系聯，引而申之，以究萬原。畢終於亥，知化窮冥。(說文解字·第15下·敘)

(이 14편은 540부수, 9353문, 중문 1763자, 해설자는 모두 133,441자로 이루어져 있다. 부수를 세움에 있어서 ‘一’을 처음으로 삼는다. 비슷한 종류들을 모아서 여러 무리로 나누었다. 한 조목에서 나온 것은 함께 묶고, 같은 이치이면 서로 엮는다. 서로 섞이게 하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며, 형체에 근거하여 순서가 이어지게 한다. 그것을 끌어당기고 늘려서, 온갖 근원을 다 파헤쳤다. ‘亥’에서 끝을 맺으니, 변화를 알고 그으

1) 『강희자전』 214부수 : 4,7000자 = 1부수 : 219.6자인 반면 『설문해자』 540부수 : 9353자 = 1부수 : 17.3자이다.

2) 염정삼은 이 540개의 부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설문』에 보이는 540개의 부수자는 그대로 그런 조직과 계열 및 분류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 언어학적으로 한편 생각해 보면 540개의 부수 분류는 기본 단위로서의 쪼개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의 분류는 명백한 원자론적인 분류가 아니다. 서로 그 영역을 엄밀하게 쪼개기 어려운 상호 관계적인 분류이다.”(廉丁三, 「동아시아 문명의 소통과 중국 문자」,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8.02, p.56 참조)

3) 『後漢書·儒林列傳·下』에 “許慎이 지은 『說文解字』 14편이 세상에 전해진다.”(初，慎以五經傳說臧否不同，於是撰為五經異義，又作說文解字十四篇，皆傳於世。)라고 하였다. 즉, 허신은 15권이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許慎의 아들인 許沖이 14편에 叙를 합쳐 15권이라 하여 현상하였기 때문에 후대 叙錄家들이 어떤 이는 14편, 혹은 15권이라고 서로 다르게 말하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한 것에 통할 수 있다.)

이는 허신이 우주만물을 540개의 요소로 본 것과 다름 아니다. 마치 각 권이 특정 주제로 이루어진 백과사전과도 같다. 즉, 허신의 자전은 일종의 우주만물을 분석한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540개의 요소가 출현하고 사라지는 원리가 ‘一’에서 시작하여 ‘亥’로 끝나는 우주이기에 그 배열과 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마치 14幕[卷] 540場[部首]의 대서사극과 유사하다.

그래서 『설문』 부수의 순서에 대한 규칙은 대단히 엄격하다. 즉, ‘據形系聯’이다. 이에 대한 段玉裁의 注를 보면 다음과 같다.

系者, 懸也. 聯者, 連也. 謂五百四十部次第, 大略以形相連次. 使人記憶易檢尋. 如八篇起人部, 則全篇三十六部皆由人而及之是也. 雖或有以義相次者, 但十之一而已. 部首以形爲次, 以六書始於象形也. 每部中以義爲次, 以六書歸於轉注也.

‘系’라는 것은 매달아 늘어진다(懸)는 뜻이다. ‘聯’이라는 것은 잇닿아 연결되다(連)는 뜻이다. 也. 540부수의 순서를 말하자면 대략 ‘形相’으로 연이어 그 다음을 잇는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어 검색을 쉽게 한다. 예를 들어 8편의 人部로 시작하는 것은 全篇 36부수가 모두 ‘人’으로부터 이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비록(形相이 아닌) ‘義相’으로 그 다음을 잇는 것도 있으나 10분의 1일 따름이다. 부수는 ‘形’으로써 순서를 삼으며, 六書는 상형으로 시작한다. 매 부마다 ‘義’를 그 다음으로 하고, 육서는 전주로 끝난다.

단옥재는 “據形系聯”에 대해 “系者, 懸也. 聯者, 連也.”라 하였다. 즉, 系聯은 懸連으로서 어떤 물건을 높이 걸어 두어 잘 드러나게 한다는 ‘懸’과 그 물건들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배열하여서 결국 사람들이 어떤 특정의 물건을 찾기에 편리하도록 도모한다는 ‘連’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때 원칙은 곧 形相次와 義相次인데, 形相次가 주된 원칙이고 義相次는 보조적인 원칙임을 위의 설명으로 알 수 있다. 形相次는 곧 『설문·후서』의 “雜而不越, 據形系聯”에 해당하며, 義相次는 “同牽條屬, 共理相貫”에 해당한다.

그러나 “據形系聯”이라는 이 방법은 『설문』에서 그 기준만 제시되어 있을 뿐 540개의 부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설문』의 부수자에 대한 해설 및 단옥재의 각 부수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여 540개 부수를 系聯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540개 부수가 ‘스토리 텔링’의 방식으로 결론 부분에서 540場[部首]의 대서사극을 구현하고자 한다.

단, 이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편폭상 『설문』卷1의 14개 부수만을 그 대상으로 한

다. 또한 한자사전으로서의 『설문』은 비단 앞에서 언급한 형체[形相次]와 의미[義相次]뿐만 아니라 發音으로도 계련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은 예외로 한다.

## 2. 許慎의 部首

### 1) 部首 설정의 배경

『설문』의 부수 체계는 ‘分別部居, 不相雜廁’<sup>4)</sup>의 배열 순서를 갖는다. 이에 대한 段玉裁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먼저 540부수에 대한 설명이다.

居當作厠. 凡居處字, 古用厠. 後世乃用居爲之. 許從俗也. 廁猶置也. 分別部居不相雜廁, 謂分別爲五百四十部也. 周之字書, 漢時存者史籀十五篇, 其體式大約同後代三倉. …… 其體例皆雜取需用之字, 以文理編成有韻之句. 與後世千字文無異. 所謂雜廁厠也.

居는 厠(거)로 적어야 한다. 무릇 居處의 자는 고대에 厠를 사용했었다가 후세에 居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허신은 俗을 따른 것이다. 廁은 置와 같다. ‘分別部居, 不相雜廁’(부수를 나누어 세우고 글자를 배열하여 서로 혼란스럽게 섞이게 하지 않는다)<sup>5)</sup>한다는 것은 540부로 분별한다는 것을 이른다. 周의 자서로서 한대까지 보존된 『사주』15편은 그 체제와 방식이 대략 후대의 『삼창』과 같다. …… 그 체제는 모두 필요한 글자를 혼잡스럽게 취하여 문리로써 韻이 있는 구절을 편성하여 후세의 『천자문』과 다를 바 없으니 이른바 혼란스럽게 섞여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전 周代의 자서인 『사주』15편과 『삼창』의 체제가 글자가 혼잡스럽게 배치되어 있으며, 비록 그것들이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여전히 글자를 검색하기에는 불편하였음을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分別部居, 不相雜廁’해서 글자의 검색에 편리한 방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글자의 형체와 발음에 대한 해설이다.

識字者略識其字. 而其形或譌. 其音義皆有所未諦. 雖有楊雄之倉頡訓纂, 杜林之倉頡訓

4) 『說文解字·後序』에 있는 내용이다.

5) “部居란 지금의 部首를 말하는 것이며, 雜廁(잡치)는 지금의 雜混(混雜)의 뜻으로 ‘부수로 분별하여 서로 어지럽게 섞이지 않게 한다’는 말이다.”, 진광호, 『『說文解字』 無屬部字 部首 分析』, 『중국어학』, 제64집, 대한중국학회, 2018.09, p180. 참조.

纂倉頡故. 而散而釋之. 隨字敷演. 不得字形之本始, 字音字義之所以然. 許君以爲音生於義. 義著於形. 聖人之造字. 有義以有音. 有音以有形. 學者之識字. 必審形以知音. 審音以知義.

글자를 아는 이가 그 글자를 조금 알아도 자형이 혹시 바뀌어 있으면 그 발음과 의미를 모두 자세히 알 도리가 없다. 비록 양웅의 『창힐훈찬』, 두림의 『창힐훈찬』, 『창힐고』에서 그 글자에 대해 각각 풀이를 하고 글자에 따라 설명을 하여도 자형의 근원과 자음 및 자의의 그러한 이유를 모른다. 허신은 발음은 의미에서 생기고, 의미는 자형에서 드러나는 것이라 여겼다. 성인이 글자를 만든 것은 의미가 있음으로써 소리가 있고, 소리가 있음으로써 형체가 있게 된 것이다. 배우는 이들이 문자를 인식하는 것은 반드시 형체를 살핌으로써 발음을 알아야 하고, 발음을 살핌으로써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허신은 자형을 통해 자음과 자의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자형은 『설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고대로부터 문자가 있기 전에 소리가 있었고, 소리가 있기 전에 의미가 있었다는 인식은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대단히 선지적이고 뛰어난 견해가 아닐 수 없다. 무릇 인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위의 대상과 우주를 ‘의미’로 인식하고 그것을 ‘발음’하였을 것이며, 이 발음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수단이 곧 문자라는 모습을 갖춘 ‘형체’이기에 그렇다. 이러한 근거로 기존의 일부 학동용 교재는 ‘(글자를 모으지 않고)를 별도로 풀이하고 그 글자를 설명하는(散而釋之. 隨字敷演) 방식은 체계적인 글자 학습법이 아니기에 더더욱 자형을 총괄하는 부수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聖人造字實自像形始. 故合所有之字. 分別其部爲五百四十. 每部各建一首. 而同首字則曰凡某之屬皆從某. 於是形立而音義易明. 凡字必有所屬之首. 五百四十字可以通攝天下古今之字. 此前古未有之書. 許君之所獨創. 若網在綱. 如裘挈領. 討原以納流. 執要以說詳. 與史籀篇, 倉頡篇, 凡將篇亂雜無章之體例不可以道里計.<sup>6)</sup>

성인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실로 상형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모든 글자를 합하여 540개의 部로 분별하였다. 매 부마다 하나의 首를 세우고 같은 首의 글자들은 곧 ‘凡某之屬皆從某’(무릇 어떤 무리에 속한 것은 모두 그것을 따른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形이 세워지면 발음과 의미가 쉽게 분명해진다. 무릇 字는 반드시 소속된 首가 있어야 한다. 540字는 천하고금의 글자들을 통섭하고 있다. 이는 예전에는 없던 책으로서 허신의 독창적인 것이다.

6) 『斷句套印本說文解字注』,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p.764.

허신은 문자는 무릇 상형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다. 허신의 육서를 꿰뚫는 조자 법은 상형이다. 한자는 그림으로부터 시작한 상형이 아니라 사실 발음을 저장하는 방식이 상형이라는 방법이였기에 표음을 위주로 한 문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허신은 이를 간과하였기에 상형이라는 ‘의미×발음[독체자]’의 독체부호로부터 ‘의미[독체자]+의미[독체자]’의 회의자, ‘의미×발음[독체자]+의미[독체자]’의 형성자의 원리를 일찍이 인식하고 육서론을 썼을 것이다.

사실 轉注는 그 의미의 인신이라는 기능으로 보아 이미 의미가 ‘의미[독체자]+의미[독체자]’의 기능으로서 제3의 의미를 도출해 내는 데 성공한 회의자로부터 그 기능은 시작되었으며, 전주는 더이상 글자를 새롭게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글자를 재활용한 추가적인 기능이다. 假借 또한 ‘의미×발음[독체자]’에서 이미 실현된 바 있는 한자라는 상형부호의 발음을 담고 있던 기능에서 의미를 배제한 채 발음만을 전문적으로 활용한 방식이다. 이렇게 육서는 전주와 가차에 이르러 완성되지만 이 역시 ‘상형’의 ‘의미×발음[독체자]’라는 기능을 ‘의미’에 있어서는 전주로써 의미를 확장하고, ‘발음’에 있어서는 가차로서 그 발음을 재활용한 것에 다름 아니다.

## 2) 部首가 540개인 이유

허신은 古文經學字이다. 고문경학은 유가의 경전을 고대 사료의 전적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경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今文經學의 방식에 반대한다. 출토와 전대의 문헌을 근거로 하여 고서의 면모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로 언어문자 연구에 힘써 경서의 훈고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경학의 대가였던 허신 또한 한대에 크게 유행한 陰陽讖緯사상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다.

‘讖’ 즉, 圖讖은 신비로운 은어나 언어를 신의 계시로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禍福吉凶과 治亂興衰를 보여주는 것이다. ‘緯’는 신학적 이론으로 유학의 경전을 설명하는 것이다. 참위의 사상은 서한 중후반에 형성되어 동한 시기에 전면적으로 성행하여 사회생활과 학술사상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첫째, 정치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고 통치를 공고히 하는 여론을 조성하여 군왕이 권력을 신으로부터 내려받았다는 합리성을 논증한다. 둘째, 학문적으로 학자들에 의해 자신의 저작물에 많이 인용되어 유교 경전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당시 통치 사상에 신비로움과 신성함의 후광을 입히는 것이다.<sup>7)</sup>

7) 黄朴民, 「两汉讖纬简论」, 『清华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3期(第23卷), 2008, p.41.

허신의 540개라는 부수의 숫자가 바로 陰陽五行학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음양 오행은 천지간의 모든 자연현상과 사물 및 추상적 개념을 포함한다. 먼저 陰陽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40이라는 숫자는 다른 아닌 6, 9, 10을 곱한 것이다. 『說文·卷14』의 부수인 ‘六’에 대한 풀이는 “六, 易之數, 陰變於六, 正於八.”(6은 易의 수다. 陰은 6에서 변하고, 8에서 올바르게 된다.)이다. 이는 段注에 의하면 “‘6’이 陰의 변화를 나타내는 수이며, ‘8’은 陰의 바른 위치[正]를 나타내는 수”라는 것이다.<sup>8)</sup> 이 ‘六’ 다음의 ‘七’에 이어 나오는 부수인 ‘九’에 대한 풀이는 “陽之變也.”(陽의 변화이다.)이다. 段注는 “『列子』, 『春秋經傳』, 『白虎通』, 『廣雅』에서 모두 9는 다하다[究]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sup>9)</sup> 즉 6은 陰의 極數이며 9는 陽의 極數라는 의미이다. 다시 『說文·卷14』의 부수 ‘十’은 “數之具也. 一爲東西, 丨爲南北, 則四方中央備矣.”(10은 수가 완비된 것이다. ‘一’은 東西이고, ‘丨’은 南北이니 사방과 중앙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였다. 段注에서는 ‘數之具也’라는 구절이 “『漢書·律曆志』에서 十에서 모인다.”라고 하였다”라고만 하였을 뿐 별다른 풀이는 없다.<sup>10)</sup> 이상을 종합하면 6, 9, 10은 음과 양의 극한이며 모든 것을 갖춘 수이다.

이어서 五行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90金·206木·410水·382火·480土<sup>11)</sup>의 다섯 개의 기본 부수를 두고 다시 인문과 자연현상인 天干의 513甲, 514乙, 515丙, 516丁, 517戊, 518己, 520庚, 521辛, 523壬, 524癸 10개 부수와 地支의 525子, 529丑, 530寅, 531卯, 532辰, 533巳, 534午, 535未, 536申, 537酉, 539戌, 540亥의 12개 부수를 세우고 있는데, 이는 사물과 글자의 조화를 극대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540개 부수는 세상의 인간사는 물론 필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는 주도면밀한 개수라 할 수 있다.

### 3. 「卷1」 14개 部首의 系聯

『설문해자』 卷15上에는 권1부터 권14까지의 부수의 목록을 실고 있다. 段玉裁는 각 부수에 대해 짧게 주석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이 주석을 참조할 것이다.<sup>12)</sup> 동시에 『설문해자』 본문의 부수에 대한 설명과 단옥재 주석도 함

8) “此謂六爲陰之變, 八爲陰之正也.”, 『斷句套印本說文解字注』,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p.738.

9) “列子, 春秋經傳, 白虎通, 廣雅皆雲. 九, 究也.”, 『斷句套印本說文解字注』,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p.738.

10) “數之具也. 漢志. 協於十. 一爲東西. 丨爲南北. 則四方中央備矣. 是執切.”, 『斷句套印本說文解字注』,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出版, 1983, pp.88-89.

11) 부수 앞의 숫자는 540부수의 순서다. 이하 동일함.

께 참고하여 부수가 어떻게 계련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설문』의 계련 방식은 앞 서론의 단옥재 주석에서 보이듯이 形相次와 義相次라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形相次가 주된 원칙이고 義相次는 보조적인 원칙인 것은 분명하다. 즉, 540개 부수를 形相次만으로 연이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한 것이 義相次이기 때문이다. 義相次는 동시에 540개라는 많은 개수의 부수를 암기하기 쉽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形相次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득이한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이다.

形相次는 마치 꼬리잡기 놀이처럼 앞 부수가 뒤 부수에게 형체를 전달하는 순서이며, 義相次는 앞 부수의 의미를 뒤 부수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義相次는 반드시 直列的 혹은 順次的인 先後관계는 아니다. 다시 말해 竝列式으로 직전의 부수가 아닌 훨씬 앞에 있던 부수의 의미를 이어받는 방식으로 540개 부수를 잇고 있다.

그러나 形相次라 할지라도 단순히 앞 부수의 형체가 뒤 부수에게 전달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마치 義相次처럼 훨씬 앞에 나왔던 부수를 잇는 방식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形相次에서도 직렬적 혹은 순차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수가 있는가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부수를 잇는 부수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계련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첫 번째 방식은 直列式이다. 도식화하면 마치  $A1 \rightarrow A2 \rightarrow A3 \rightarrow A4 \rightarrow A5$ 처럼 직전의 부수를 이어서 그 形相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계련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반드시  $A1 \rightarrow A2 \rightarrow A3$ 의 순차적으로 계련하지 않고  $A1 \rightarrow A2 \rightarrow A3 \rightarrow A4 \rightarrow A2$ 처럼 몇 단계 앞에 떨어져 있는 부수를 계련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그 형상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직렬식으로 분류하였다. 이 방식을 필자는 直列式이라 명명한다.

두 번째 방식은 竝列式이다. 도식화하면 마치

|   |    |
|---|----|
| A | A1 |
|   | A2 |
|   | A3 |
|   | A3 |

처럼 하나의 부수가 다른

여러 부수에 가로로 이어지는, 즉, 직렬식처럼 순차식이 아닌 세로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직전의 부수와 형체상 연관이 있지만 마치 독자적인 부수처럼 다른 여러 부수들에게 공통으로 계련되는 구조다.<sup>13)</sup> 그러므로 병렬식은 직전의 부수와는 직렬식이지만, 다시 독자적으로 여러 부수들에게 계련될 때는 병렬식으로 그 역할을

12) 본문의 표에서는 편의상 ‘段注’라 표기하고 있다.

13) 이 직렬식과 병렬식의 방식은 繆九花의 「许慎《说文解字》部首排列系联方式新探」(『南昌大学学报』, 2010, pp.1-2)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직렬식’과 ‘병렬식’이라는 용어는 필자의 명명이며, 繆九花의 논문에서 분류한 방식과 필자의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수행한다. 이 방식을 필자는 竝列式이라 명명한다.

직렬식은 이른바 據‘形’系聯에 해당하며, 병렬식은 據‘義’系聯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설문·후서』의 “方以類聚, 物以群分.”이라 한 ‘類聚’의 개념과도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련부수는 形相과 義相에서 같지 않고 다를 수 있다. 아래의 부수를 분석한 표에서 직렬식으로 계련되는 경우는 화살표 →로, 병렬식으로 계련되는 경우는 화살표 ⇨로 표시하였다. 아울러 계련되는 횟수도 함께 표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근거하여 부수를 形相과 義相 두 가지로 우선 분류하고 다시 形相과 義相 내부에서 벌어지는 直列式과 竝列式 두 가지로 세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 결과 形相次와 義相次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540개의 부수를 계련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 部首<br>순서 | 部首                    | 系聯<br>部首 | 形相 |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 所屬字                  | 說文解字   |
|----------|-----------------------|----------|----|---|----------------------|--|
|          | (篆書)                  |          | 義相 |   |                      |  |
| 卷1       | 一二示三王玉玕气士丨 中艸蓐𨮒 (14개) |          |    |   |                      |  |
| 1        | 一<br>[일]<br><br>一     | 540<br>亥 | 形相 | ○段注：없음.<br>○系聯部首：540亥<br>· 첫 번째 부수이기에 계련 부수가 없을 수 있겠으나, 사실 이 1一은 540亥를 잇고 있다.<br>· 『설문』의 1一은 “惟初太始, 道立于一, 造分天地, 化成萬物.”이며, 540亥는 “亥也. 十月, 微陽起, 接盛陰. 从二, 二, 古文上字. 一人男, 一人女也. 从厶, 象裹子咳咳之形. 『春秋傳』曰：‘亥有二首六身’ 凡… 𠂇, 古文亥爲豕, 與豕同. 亥而生子, 復從一起.”(亥는 뿌리[亥]라는 뜻이다. 10월에 미미한 陽이 일어나 성한 陰과 접한다. 二(上)으로 구성되었다. 二은 上의 고문이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다. 厶(은)으로 구성되었는데, 아이를 뱀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春秋傳』에서 “亥의 두 획은 머리 모양이고 여섯 획은 몸의 모양이다.”라고 하였다. … 𠂇는 亥의 고문이다. 亥는 돼지다. 豕와 같다. 亥가 되어 자식을 낳으니 다시 一에서 일어난다.)라고 하였다. 즉, 陰陽의 男女가 자식을 잉태하였으며 그 모습이 一이니 1一은 540亥를 역순으로 계련하고 있다. 다시 새로운 우주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br>· 이를 근거로 1一의 계련부수를 540亥로 분석한다.<br>○系聯方式：直列式<br>· 540亥를 직접적으로 잇는 직렬식이다. | 一 元<br>天 丕<br>吏 (文5) | 惟初太極, 道立于一, 造分天地, 化成萬物. 凡一之屬皆从一.<br>(一은 처음의 太極이다. 道는 一에 근거하여 천지를 나누고 만물을 만들어 냈다. 무릇 一부에 속하는 한자는 모두 一의 의미를 따른다.)<br>* ‘太極’이 宋代 徐鉉本에는 ‘太始’로 되어 있다. 반면 徐鍇本은 ‘太極’으로 되어 있는데, 段玉裁는 일반적으로 徐鉉本을 따르면서도 이 부분만큼은 徐鍇本을 따르고 있다. <sup>14)</sup><br>* ‘凡X之屬皆从X’라는 표현은 허신이 부수임을 밝힌 부분으로서 이하 모두 ‘凡…’으로 표기함. |
|          |                       |          | 義相 | · 『설문』의 一에 대한 풀이처럼 一은 우주의 시작[太始]이며, 모든 이치[道]의 시작이다. 그렇기에 이 一을 허신이 생각하는 우주를 한 바퀴 엮는 540부수의 첫 부수로서 설정하였다. 그렇기에 첫 번째 소속자가 元일 것이다.<br>· 이 우주는 540亥에서 마무리되는데, 이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一을 잉태한 새로운 시작이다.   |                      |  |

| 部首<br>순서 | 部首<br>(篆書)<br>(楷書) | 系聯<br>部首  | 形相<br>義相 |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 所屬字                        | 說文解字   |
|----------|--------------------|-----------|----------|--|----------------------------|--|
|          |                    |           |          | ○系聯部首：540亥<br>・形相의 근거와 같다.<br>○系聯方式：直列式  |                            |  |
| 2        | 二<br>[상]<br><br>上  | 1一        | 形相       | ○段注：蒙(=蒙)一而次之。<br>(一을 이어 받아 그 다음을 잇는다.)<br>○系聯部首：1一<br>・단주의 “蒙一”과 2上의 전서체에 근거하였다.<br>・段注는 이 외에 “短畫在長畫之上。有物在一之上也。其別於二字者，兩畫長短均也。各本二篆作上。非。”(짧은 획이 긴 획의 위에 있다. 사물이 一의 위에 있는 모양이다. 二字는 두 획의 길이가 균등한 것과 구별이 된다. 二의 전서는 上이어서 다르다.)라고 하여 二가 古文의 上字임을 분명히 하였다.<br>・479二의 段注에서 ‘不蒙上’(上을 이어 받지 않는다)으로 上과 다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br>○系聯方式：(1一을 계련하는) 直列式<br>・1一의 계련 횟수：2회(1一→2上)<br>* 이하 ‘특정 부수의 계련 횟수’는 부수 자신을 포함하여 그 부수가 다른 부수의 계련부수로 쓰일 때를 의미한다. 즉, 부수 자신의 경우에는 모두 1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2회부터 산출함을 밝힌다. | 上 帝<br>旁 丁<br>(文4)         | 高也。此古文上，指事也。凡…<br>(上은 높다라는 뜻이다. 이 글자의 고문은 上이며, 지사이다. …)  |
|          |                    |           | 義相       | ・우주의 시작은 곧 음양, 천지 등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혼돈의 시작이기에 허신은 一이 나누어진 후 먼저 하늘의 이치를 설명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 소속자가 인간 세상의 최고인 帝일 것이다.<br>○系聯部首：1一<br>・形相의 근거와 같다.<br>○系聯方式：直列式   |                            |  |
| 3        | 示<br>[시]<br>示      | 2上<br>(上) | 形相       | ○段注：次示者，示从二。蒙二[上]而次之也。<br>(다음이 示인데，示는 二으로 구성되어 있다. 二을 이어 받아 그 다음을 잇는다.)<br>○系聯部首：2上(上)<br>・단주의 “示从二[上]”과 『설문』의 “从二[上]”에 근거하였다.<br>○系聯方式：直列式<br>・2上의 계련 횟수：2회(2上→3示)  | 示 祐<br>禮 禧<br>禎 …<br>(文63) | 天垂(垂)象，見吉凶，所目示人也。从二[上]。三垂，日月星也。觀乎天文，目察時變。示，神事也。凡…<br>(示는 하늘에서象을 내려주어 길흉을 보는 것은 사람들에게 제시하려는 것이다. 二[上]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줄이 내려진 것은 해·달·별이다. 천문을 관찰하고 이것으로 시간의 변화를 살펴서 神이 하는 일을 보여준다.) |
|          |                    |           | 義相       | ・혼돈의 상태[一]가 上下로 나누어지고 난 후, 上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天일 것이다.<br>・『설문』에서도 하늘에는 日月星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br>○系聯部首：2上<br>・形相의 근거와 같다.<br>○系聯方式：直列式  |                            |  |

| 部首<br>순서 | 部首<br>(篆書)<br>(楷書) | 系聯<br>部首 | 形相<br>義相 |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 所屬字               | 說文解字  |
|----------|--------------------|----------|----------|---|-------------------|---|
| 4        | 三<br>[삼]<br><br>三  | 3示       | 形相       | ○段注：蒙示有三垂. 而以三次之.<br>(示의 세 개의 세로선이 있는 것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三으로써 그 다음을 잇는다.)<br>○系聯部首：3示<br>· 단주의 “蒙示” 및 3示의 자형이 二[上] 아래에 三이 늘어져 있는 모양에 근거하였다.<br>○系聯方式：直列式<br>· 3示의 계련 횟수：2회(3示→4三)<br>· 3示의 “蒙二而次之也.”(二를 이어받아 그 다음을 잇는다.)와 4三의 “蒙示有三垂”(示의 세 개의 세로선이 있는 것을 이어받는다.)의 3示와 4三에 대한 단주를 결합하면 示와 三의 공통된 형상은 示의 세로선 세 개가 가로로 바뀐 三이라 할 수 있다.<br>· 위의 3示와 4三에 대한 단주의 풀이 및 形相을 모두 고려하여 3示를 계련부수로 분석한다. | 三<br>(文1)         | 數名. 天地人之道也. 於文一耦二爲三. 成數也. 凡…<br>(三은 수의 이름이다. 하늘, 땅, 사람의 道를 뜻한다. 자형을 보면 ‘一’과 ‘二’가 짝하여 ‘三’이 되었으니 완전수이다. …)  |
|          |                    |          | 義相       | · 위 3示의 日月星 세 가지를 이어 天地人은 이른바 『周易』에서 말하는 3才에 해당한다. 허신의 三은 곧 세 가지 天地人의 道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br>○系聯部首：3示<br>· 形相의 근거와 같다.<br>○系聯方式：直列式  |                   |   |
| 5        | 王<br>[왕]<br><br>王  | 4三       | 形相       | ○段注：蒙三而次之.<br>(三을 이어 받아 그 다음을 잇는다.)<br>○系聯部首：4三<br>· 단주의 “蒙三”과 『설문』의 “三者, 天地人也, 而參通之者王也.”에 근거하였다.<br>○系聯方式：直列式<br>· 4三의 계련 횟수：2회(4三→5王)<br>· 段注는 또한 “从一卅三也.(一로써 三을 꿰뚫는다.”라고 하여 허신의 王에 대한 풀이에 동의하고 있다.   | 王 閔<br>皇<br>(文3)  | 天下所歸往也. 董仲舒曰：“古之造文者, 三畫而連其中謂之王. 三者, 天地人也, 而參通之者王也.” 孔子曰：“一貫三爲王.” 凡…<br>(王은 천하가 귀의하는 곳이다. 동중서는 “옛날에 문자를 만드는 사람이 세 번 획을 긋고 그 가운데를 이어서 ‘王’이라고 하였다. ‘세 개의 획’은 하늘, 땅,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것이 王이다.”라고 하였다. 공자는 “하나로써 세 가지를 관통하는 것이 王이다.”라고 하였다. …) |
|          |                    |          | 義相       | · 天地人의 道는 上中下에 해당하며, 곧 上=天, 中=人, 下=地이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관통하여 天과 地 가운데에 위치한 인간 세상을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王이다.<br>○系聯部首：4三<br>· 形相의 근거와 같다.<br>○系聯方式：直列式   |                   |   |
| 6        | 王<br>[옥]<br><br>王  | 4三       | 形相       | ○段注：亦蒙三而次之.<br>(또한 三을 이어 받아 그 다음을 잇는다.)<br>○系聯部首：4三   | 玉 璆<br>璫 璫<br>璫 … | 石之美有五德者. 潤澤且溫. 仁之方也. 鰓理自外, 可  |

| 部首<br>순서 | 部首<br>(篆書)<br>(楷書) | 系聯<br>部首 | 形相<br>義相 |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 所屬字          | 說文解字  |
|----------|--------------------|----------|----------|---|--------------|---|
|          | 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주의 “蒙三”과 『설문』의 “三者, 天地人也, 而參通之者王也.”에 근거하였다.</li> <li>○系聯方式: 直列式</li> <li>『설문』의 “象三玉之連.   其貫也.”에 근거하면 세 개의 옥을 관통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6玉의 계련부수를 4三으로 분석한다.</li> <li>4三의 계련 횟수: 3회(4三→5王→6玉)</li> <li>단, 6玉은 형체상 5王을 계련한다고 볼 수 있으나, 허신의 풀이와 단주에 근거하여 4三을 계련부수로 분석하였다.</li> </ul>  | (文24)        | 目知中, 義之方也. 其聲舒揚, 尊呂遠聞, 智之方也. 不撓而折, 勇之方也. 銳廉而不技, 絜之方也. 象三玉之連.   其貫也. 凡….                   |
|          |                    |          | 義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 해설에서 玉의 다섯 가지 德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까닭은 곧 5王이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德을 의미하기 때문이다.</li> <li>玉은 비단 다섯 가지 덕을 상징하기 이전에 秦漢시기 이상적인 인격체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소속자가 24개에 달하는 것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li> <li>○系聯部首: 5王</li> <li>6玉은 5王과 형체가 비슷하지만 玉에 대한 해석은 5王에 대한 해석과 다르며, 의미적으로 5王을 직접적으로 잇고 있다.</li> <li>○系聯方式: 直列式</li> </ul>  |              | (돌[옥]의 아름다움에는 다섯 가지 덕이 있다. 仁…, 義…, 智…, 勇…, 絜…. 세 개의 옥이 이어져 있고,   이 그것을 관통한 모양을 상형하였다. ….) |
| 7        | 玨<br>[각]<br><br>玨  | 6玉       | 形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段注: 蒙王而次之. (王을 받아 그 다음을 잇는다.)</li> <li>○系聯部首: 6玉</li> <li>단주에서는 “蒙王”이라 하였으나, 연이는 “凡竝之重之而又有屬者則別爲部. 如玨之屬有班璊是也. 並之重之而無屬則不別爲部. 如祿在示部之末是也.”(무릇 병립되어 중첩되면서 또한 귀속됨이 있는 글자는 별도의 부수로 한다. 예를 들면 玨의 무리에 班과 璊이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병립하여 중복되나 귀속됨이 없는 것은 별도의 부수로 세우지 않는다. 예를 들면 祿(셈 산)이 示部の 끝에 있는 것이 그 예이다.)라고 하여 玨이 합체자이지만 부수가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면 7玨의 계련은 5王이 아니라 6玉으로 보는 게 맞다고 분석한다.</li> <li>아울러 『설문』의 “二玉相合爲一玨”에 근거하였다.</li> <li>그러므로 단주의 “蒙王”은 形相이 아닌 義相으로 보는 게 맞다.</li> </ul> | 玨 班璊<br>(文3) | 二玉相合爲一玨. 凡… 璊(穀), 玨或从設. (두 개의 옥을 합하여 하나의 玨을 만든다. 璊은 玨의 或字이며, 穀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                    |          | 義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玨(=玨)은 6玉 두 개를 줄로 엮은 모습이다. 즉 串玉이다. 이미 6玉에서 옥석의 덕에 대해 충분히 서술하고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 7玨을 별도의 부수로 세우지 않아도 되었겠으나, 허신은 처음부터 540이라는 숫자를 확정하였을 것이기에 이 玨 부수를 독립 부수로 세웠을 것이라 추정한다.</li> <li>○系聯部首: 6玉</li> <li>玉石을 두 줄로 엮어 하나의 玨이 되듯이 그 덕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그래서 위 形相의 근거와 같</li> </ul>   |              |   |

| 部首<br>순서 | 部首<br>(篆書)<br>(楷書) | 系聯<br>部首    | 形相<br>義相 |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 所屬字             | 說文解字  |
|----------|--------------------|-------------|----------|--|-----------------|---|
|          |                    |             |          | 다.<br>○系聯方式：直列式  |                 |   |
| 8        | 气<br>[기]<br>气      | 4三          | 形相       | ○段注：文象形。而次此字。爲其列多不過三。<br>(독체자[文])이며, 상형이다. 그래서 다음이 이 글자이다. [气가 세 개의 획으로 이루어진 것은] ‘많은 것을 나열할 때 셋을 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br>• “而次此字.”(그래서 다음이 이 글자이다.)라 한 이유는 앞의 7王 이전의 글자와 계련되지 않음을 단옥재가 설명하고자 한 까닭으로 추측한다.<br>○系聯部首：4三<br>• 단주의 “爲其列多不過三”과 『설문』 본문의 段注에서 “是類乎從三者也。故其次再是.”(이 글자는 ‘三’의 의미를 따르는 종류의 글자이므로, 배열 순서를 ‘三’의 뒤인 여기에 둔다)라고 한 것에 근거하였다.<br>○系聯方式：竝列式<br>• 앞의 부수를 잇는 직렬적 계련이 아닌 원거리의 4三을 계련하고 있기 때문에 병렬식으로 분석한다.<br>• 4三의 계련 횟수：4회(4三→5王→6玉→8气)<br>義相<br>• 8气는 7王과 형체와 의미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br>• 다만, 형체상 위의 단주에서도 보이듯이 8气는 4三을 잇고 있다.<br>• 즉 허신은 王의 氣像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한다.<br>○系聯部首：4三<br>• 왕의 일을 담당하는 9士가 갖추어야 할 氣像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에 근거하였다.<br>○系聯方式：竝列式 | 气 氛<br>(文2)     | 雲气也 象形 凡…<br>(气는 구름의 기운이다. 상형이다. ….)  |
| 9        | 士<br>[사]<br>士      | 5王          | 形相       | ○段注：蒙上以一卅三。次之以十合一。<br>(上을 이으면서 一로써 三을 관통한다. [그래서] 그 뒤를 잇는 글자는 十과 一을 합친다[士].)<br>○系聯部首：5王<br>• 단주에서는 “蒙上”이라 하여 얼핏 ‘上’이 계련인 듯하나, 사실 이는 5王에 대한 풀이라 할 수 있다. 이유인즉, ‘士’는 王의 생략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br>• 9士 및 5王의 전서 자형 그리고 허신이 인용한 공자의 “推十合一爲士.”는 곧 王을 의미하는 것에 근거하였다.<br>○系聯方式：竝列式<br>• 5王의 계련 횟수：2회(5王→9士)<br>義相<br>• 『설문』 해설에 보이듯이 一은 시작이고 十은 끝이다.<br>○系聯部首：8气<br>• 왕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9士인데 위의 8气가 4王의 氣像을 이어받고 다시 9士의 그것까지 연관되고 있는 것에 근거하였다.<br>○系聯方式：直列式   | 士 壻 壯 墉<br>(文4) | 事也。數始於一，終於十。从一从十。孔子曰：“推十合一爲士。”凡…<br>(士는 일을 맡는다는 뜻이다. 수는 一에서 시작해 十에서 끝난다. 一과 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자는 “열가지(十) 사항을 정리하여 한 가지(一)로 귀납하면 士가 된다.”고 하였다. ….) |
| 10       | 丨<br>[곤]<br>혹은 6玉  | 5王<br>혹은 6玉 | 形相       | ○段注：王玉中皆有丨以卅之。故次之以丨。<br>(5王과 6玉에는 모두 丨이 있어 관통하고 있다. 그러므로 丨으로써 다음을 잇는다.)  | 丨 中<br>於 (文3)   | 上下通也。引而上行讀若囟，引而下行讀若遯。凡…   |

| 部首<br>순서 | 部首<br>(篆書)<br>(楷書) | 系聯<br>部首 | 形相<br>義相 |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 所屬字                            | 說文解字  |
|----------|--------------------|----------|----------|---|--------------------------------|---|
|          | 丨                  |          |          | <p>○系聯部首：5王 혹은 6玉</p> <p>• 단주의 “王玉中皆有丨以毋之.” 및 상하를 관통하는 모양인 10丨이 5王과 6玉에 모두 공통된 형체이기 때문에 계련부수를 5王 혹은 6玉 두 개로 분석하였다.</p> <p>• 10丨은 앞의 『설문』에 의하면 6玉은 “丨其貫也.”(丨이 그것을 관통한 모양)이라 하였고, 7珏은 “二玉相合爲一珏.”(두 개의 옥을 합하여 하나의 珏을 만든다.)이라 하였으니, 10丨은 5王 혹은 6玉을 계련하고 있다.</p> <p>○系聯方式：竝列式</p> <p>• 이 10은 직전의 9士를 직렬식으로 계련하고 있지 않으며, 다시 11中로 이어지기 때문에 병렬식으로 분석하였다.</p> <p>• 5王의 계련 횟수：3회(5王→9士→10丨)</p>   |                                | (丨은 위 아래가 통하는 것이다. 위로 끌어당겨 쓰는 경우에는 囟(신)처럼 발음하고, 아래로 끌어당겨 쓰는 경우에는 𠂔(퇴)처럼 발음한다. ….)   |
|          |                    |          | 義相       | <p>○系聯部首：5王 혹은 6玉</p> <p>• 丨은 『설문』의 6玉에 대한 “丨其貫也.”는 인간세상의 天地人을 관통한다는 풀이는 5王의 의미와 연관되는 것에 근거하였다.</p> <p>○系聯方式：竝列式이다.</p>   |                                |   |
| 11       | 屮<br>[칠]<br><br>屮  | 10丨      | 形相       | <p>○段注：蒙引而上行之丨也.<br/>(위로 끌어당겨 쓰는 경우의 丨을 잇는다.)</p> <p>○系聯部首：10丨</p> <p>• 단주의 “蒙引而上行之丨也.”와 『설문』의 “象丨出形, 有枝莖也.”에 근거하였다.</p> <p>○系聯方式：直列式</p> <p>• 『說文解字』의 丨에 대한 段注의 위의 설명 “引而上行”을 그대로 인용하여 계련을 설명하고 있다.</p> <p>• 10丨의 계련 횟수：2회(10丨→11屮)</p>  | 屮 屯<br>每 毒<br>夆 炭<br>熏<br>(文7) | 艸木初生也. 象<br>丨出形, 有枝莖也.<br>古文或目爲屮字.<br>讀若徹. 凡…尹<br>彤說.<br>(屮은 초목의 싹이 나오는 것이다. 丨은 싹이 나오는 모양이며, 가지와 줄기가 있는 모양을 상형하였다. 고문에서는 간혹 이 글자를 艸로 여긴다. 徹(칠)처럼 발음한다. …: 이는 尹彤의 주장이다.) |
|          |                    |          | 義相       | <p>• 『설문』 해설에 丨은 초목의 싹이 처음 나오는 모양(艸木初生)이며, 屮은 가지와 줄기가 있는 모양(有枝莖)이다. 이는 곧 天地人을 관통하는 5王과 그 왕을 보좌하는 9士에 공통으로 보이는 10丨의 의미까지 병렬로 이어진다. 이는 5王이 줄기이고 그 주변의 여러 9士들이 가지와 줄기로서 변창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p> <p>○系聯部首：10丨</p> <p>• 동시에 의미적으로 9士, 5王을 잇고 있다.</p> <p>• 한편, 10丨부터 11屮, 12艸, 13蓐, 14蓐까지는 1一에서 시작한 道뿐만 아니라 초목의 싹으로부터 그 무성함까지 이어지는 자연계의 현상까지 아우르고 있는 것에 근거하였다.</p> <p>• 屮의 소속자인 屯(難也. 象艸木之初生. 屯然而難.), 每(艸盛上出也.), 毒(厚也. 害人之艸, 往往而生.)를 각각 ‘難, 盛, 厚’로 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善惡·吉凶·臭香 등 무수히 권력 주변에 모이는 주변 신하들을 경계하라는 의미일 것이다.</p> <p>○系聯方式：直列式</p> |                                |   |
| 12       | 屮<br>[초]           | 11屮      | 形相       | <p>○段注：蒙屮而次之.<br/>(屮[칠]을 이어 받아 그 다음을 잇는다.)</p>  | 艸 莊<br>蓐 芝                     | 百艸也. 从二屮.<br>凡…   |

| 部首<br>순서 | 部首<br>(篆書)<br>(楷書) | 系聯<br>部首 | 形相<br>義相 | 先後 部首의 系聯 사항   | 所屬字           | 說文解字  |
|----------|--------------------|----------|----------|--|---------------|---|
|          | 艸                  |          |          | ○系聯部首：11中<br>· 단주의 “蒙中而次之.”와 『설문』의 “从二中.”에 근거하였다.<br>○系聯方式：直列式<br>· 11中の 계련 횟수：2회(11中→12艸)   | 蕙 … (文45)     | (艸는 모든 풀을 뜻한다. 두 개의 中로 구성되어 있다. ….)   |
|          |                    |          | 義相       | · 艸는 中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 풀이 점차 무성해지는 과정이다.<br>○系聯部首：11中<br>· 形相의 근거와 같다.<br>○系聯方式：直列式   |               |   |
| 13       | 蔞<br>[옥]<br><br>蔞  | 12艸      | 形相       | ○段注：蒙艸而次之.<br>(艸를 이어 받아 그 다음을 잇는다.)<br>○系聯部首：12艸<br>· 11中을 계련자로 볼 수도 있겠으나, 단주의 “蒙艸而次之.” 및 『설문』의 “陳艸”, “从艸辱聲.”에 근거하였다.<br>○系聯方式：直列式<br>· 12艸의 계련 횟수：2회(12艸→13蔞)   | 蔞 蔞 (文2)      | 陳艸復生也. 从艸辱聲. 一曰蔞也. 凡…<br>(蔞은 묵은 풀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다. 形符 艸와 聲符 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설에는 누에窠[蔞]이라고도 한다. …. |
|          |                    |          | 義相       | · 『설문』에서 죽은 풀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 했으니, 이는 마치 풀이 살고 죽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의미이다.<br>○系聯部首：12艸<br>· 形相의 근거와 같다.<br>○系聯方式：直列式  |               |   |
| 14       | 𦰩<br>[망]<br><br>𦰩  | 11中      | 形相       | ○段注：蒙艸而次之.<br>(艸를 이어 받아 그 다음을 잇는다.)<br>○系聯部首：11中<br>· 단주의 “蒙艸”에 근거하면 12艸를 계련자로 볼 수도 있겠으나, 『설문』의 “衆艸也. 从四中.”에 근거하여 14𦰩의 계련부수를 11中로 분석하였다.<br>○系聯方式：竝列式<br>· 11艸가 13蔞과 14𦰩에 평행으로 병렬되기 때문에 직렬식이 아닌 병렬식으로 분류하였다.<br>· 11中の 계련 횟수：3회(11中→12艸→14𦰩) | 𦰩 莫 莽 葬 (文14) | 衆艸也. 从四中. 凡… 讀與岡同.<br>(𦰩은 많은 풀이다. 네 개의 中로 구성되어 있다. … 岡(망)처럼 발음한다.                             |
|          |                    |          | 義相       | · 『설문』에서도 여러 풀들이 모인 것이라 설명하였다.<br>○系聯部首：11中<br>· 形相의 근거와 같다.<br>○系聯方式：直列式  |               |   |

#### 4. 小結

앞의 표에서 분석한 직렬식과 병렬식은 비단 形相에서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義相

14) 엄정삼, 『說文解字注 部首字 譯解』,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17.



에서도 존재한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段玉裁의 “據形系聯”은 “系者, 懸也. 聯者, 連也.”라 한 것은 系聯은 懸連으로서 상호 보조적인 수단임을 밝힌 것이며, 『說文·後序』의 “雜而不越, 據形系聯”는 形相次에 해당하고, “同牽條屬, 共理相貫”은 義相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분석한 부수의 계련 횟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1一의 계련 횟수 : 2회(1一→2上)
- 2上의 계련 횟수 : 2회(2上→3示)
- 3示의 계련 횟수 : 2회(3示→4三)
- 4三의 계련 횟수 : 4회(4三→5王→6玉→8气)
- 5王의 계련 횟수 : 3회(5王→9士→10丨)
- 10丨의 계련 횟수 : 2회(10丨→11中)
- 11中の 계련 횟수 : 3회(11中→12艸→14蓐)
- 12艸의 계련 횟수 : 2회(12艸→13蓐)

이를 근거로 우선 「권1」의 14개의 부수에 대해 形相과 義相을 기준으로 도표화하고, 형상과 의상에서 直列과 竝列로 系聯되는 방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部首       | 1<br>一 | 2<br>二(上) | 3<br>示 | 4<br>三 | 5<br>王 | 6<br>玉 | 7<br>玨 | 8<br>气 | 9<br>士 | 10<br>丨        |
|----------|--------|-----------|--------|--------|--------|--------|--------|--------|--------|----------------|
| 形相       | 540亥   | 1一        | 2上     | 3示     | 4三     | 4三     | 6玉     | 4三     | 5王     | 5王<br>혹은<br>6玉 |
| 계련<br>방식 | 직렬     | 직렬        | 직렬     | 직렬     | 직렬     | 직렬     | 직렬     | 병렬     | 병렬     | 병렬             |
| 義相       | 540亥   | 1一        | 2上     | 3示     | 4三     | 5王     | 6玉     | 4三     | 8气     | 5王<br>혹은<br>6玉 |
| 계련<br>방식 | 직렬     | 직렬        | 직렬     | 직렬     | 직렬     | 직렬     | 직렬     | 병렬     | 직렬     | 병렬             |

  

| 部首       | 11<br>中 | 12<br>艸 | 13<br>蓐 | 14<br>𦰩 |
|----------|---------|---------|---------|---------|
| 形相       | 10丨     | 11中     | 12艸     | 11中     |
| 계련<br>방식 | 직렬      | 직렬      | 직렬      | 직렬      |
| 義相       | 10丨     | 11中     | 12艸     | 12艸     |
| 계련<br>방식 | 직렬      | 직렬      | 직렬      | 직렬      |



形相의 계련 방식은 다음과 같다.

- 直列式 부수 : 1一, 2上, 3示, 4三, 6玉, 10丨, 11中, 12艸
- 竝列式 부수 : 4三, 5王(혹은 6玉)
- 直列과 竝列 공통 : 4三

이는 4三이 5王으로 계련될 때는 직렬식이었다가 다시 8气로 계련되는 경우이다.

즉, 

|    |    |
|----|----|
| 4三 | 5王 |
|    | 8气 |

이다.

6玉의 경우는 10丨에서 직렬과 병렬에 모두 계련되지만 6玉을 제외하면 공통으로 해당되지 않기에 논외로 한다.

義相의 계련 방식은 다음과 같다.

- 直列式 부수 : 1一, 2上, 3示, 4三, 5王, 6玉, 7珏, 8气, 10丨, 11中, 12艸
- 竝列式 부수 : 4三, 5王(혹은 6玉)
- 直列과 竝列 공통 : 4三, 5王

4三의 경우는 위 形相의 경우와 조건이 동일하지만, 5王의 경우 10丨에서 위 형상과 마찬가지로 6玉을 제외하면 공통으로 해당되지 않기에 논외로 한다.

이어서, 위의 부수 1一부터 13艸까지 義相과 形相을 모두 고려한 스토리를 구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 순서는 義相을 먼저 풀이하고 形相은 그 뒤에 풀이하는 이유는, 허신의 풀이에서 해당 글자의 뜻을 먼저 풀이한 후 그 글자의 구조를 설명한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540 [亥] 陰陽의 男女가 자식[一]을 낳으니, 다시 一에서 일어난다. (一人男, 一人女也. 从乚, 象褰子咳咳之形.)

1 [一] 모든 만물의 시작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道는 一에 근거하여 천지를 나누고 만물이 만들어진다. 세상이 비로소 시작되는 순간이자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혼돈의 상태이다. (一, 惟初太極, 道立于一, 造分天地, 化成萬物.) [形相에 있어서 글자의 계련 또한] 540亥의 전서 𠄎에서 一을 계련하고 있다.

2 [上] (그것들이 나누어지면 먼저) 위로는 (高也.) [形相에 있어서 글자의 系聯 또한] 1一의 전서 一이 중복된 모양 二이다.

3 [示] 하늘에서 해·달·별(日月星)의 세 가지로서 神의 일을 보여준다. [形相에 있어서 글자의 系聯 또한] 직전의 上을 이어서 따르고 있다. (示, 天垂象, 見吉凶, 所眚示人也. 从上. 三垂, 日月星也.)

- 4 [三] 그 세 가지는 하늘·땅·사람의 道이다. [形相에 있어서 글자의 系聯 또한 직전의 示를 이어서 一과 二가 짝을 이루고 있다. (數名. 天地人之道也. 於文一耦二爲三.)
- 5 [王]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것으로서의) 왕은 천하가 귀의하는 곳이다. 공자가 말했듯이 하나로써 세 가지를 관통하는 것이 왕이다. [形相에 있어서 글자의 系聯 또한 직전의 三을 이어서 세 번 획을 긋고 그 가운데를 이으면 王이 되는 모양이다. (天下所歸往也. … 三畫而連其中謂之王. … 孔子曰: “一貫三爲王.”)
- 6 [玉] (王의 역할로서) 玉은 다섯 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石之美有五德者.) [形相에 있어서 글자의 系聯 또한 직전의 王을 이어서 세 개의 옥석이 이어져 있고 | 이 그 가운데를 관통하는 모양이다. (象三玉之連. | 其貫也.)
- 7 [珏] (王은 또한) 옥을 두 줄로 엮어 하나의 珏이 되듯이 그 덕목이 중요하다. (二玉相合爲一珏.) [形相에 있어서 글자의 系聯 또한 玉이 두 개 겹친 모양(珏)이다.
- 8 [气] (그래서) 王은 하늘의 구름처럼 氣像이 있어야 하며 (雲氣也.) [形相에 있어서 글자의 系聯은] 4三을 잇고 있다.
- 9 [土] (王을 보좌하여) 일을 맡는 사람[土]도 數가 一에서 시작해 十에서 완성되듯 모든 면에서 氣象을 갖추어야 한다. [形相에 있어서 글자의 系聯 또한 직전의 상징인 一과 완성의 숫자인 十이 합쳐진 모양이다. (事也. 數始於一, 終於十. 从一从十.)
- 10 [丨] 王을 보좌하는 사람은 (王과 玉이 모두 | 처럼 하나로 관통하듯이) 위와 아래를 통하는 곧음이 있어야 한다. (上下通也.) [形相에 있어서 글자의 系聯 또한 土의 모양에서 | 을 잇고 있다.
- 11 [屮] (5王과 9土는 곧음[10 |]이 있으면) 초목의 싹이 새로 나오고, [形相에 있어서 글자의 系聯 또한 직전의 | 을 잇고 있으며, | 은 싹이 나오는 모양으로서 가지와 줄기가 있는 모양의 상형이다. (艸木初生也. 象丨出形, 有枝莖也.)
- 12 [艸] 그 싹이 무성해지며, [形相에 있어서 글자의 系聯 또한 직전의 屮을 이어서 두 개의 屮이 합쳐진 모양이다. (百艸也. 从二屮.)
- 13 [蓐] 묵은 풀이 다시 살아난다. [形相에 있어서 글자의 系聯 또한 직전의 艸를 이어서 形符 艸와 聲符 辱의 결합이다. (陳艸復生也. 从艸辱聲.)
- 14 [𦰩] (이는 다시) 많은 풀이 되듯이 번성한다. [形相에 있어서 글자의 系聯 또한 11屮을 이어서 네 개의 屮이 합쳐진 모양이다. (衆艸也. 从四屮.)

## 【참고문헌】

### <단행본>

許慎 撰, 段玉裁 注, 王進祥 句讀, 王秀雲 音注, 『斷句套印本說文解字注』(四部叢刊 / 經部·小學類 - 說文之學),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出版, 1983.

엄정삼, 『說文解字注 部首字 譯解』,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17.

### <논문>

진광호, 「『說文解字』 無屬部字 部首 分析」, 『중국학』, 제64집, 대한중국학회, 2018.

郭 帥, 「《说文》部首次第考」, 黑龙江大学 硕士学位论文, 2017.

黄朴民, 「两汉讖纬简论」, 『清华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3期(第23卷), 2008.

王 晴, 「《说文解字》五百四十部首研究」, 江西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09.

袁 园, 「《说文解字》部首次第研究」, 青海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13.

刘志军, 「《说文解字注》关于《说文》字叙和部叙的发明」, 吉首大学 硕士学位论文, 2011.

郭 帥, 「《说文》部首系联原则平议」, 『汉语史学报』, 2020.

姬 娜, 「析《说文解字》部首的归纳原则」, 『新疆石油教育学院学报』, 2004.

胡达超, 「《说文解字》部首体例研究」, 『现代经济信息』, 2009.

缪九花, 「许慎《说文解字》部首排列系联方式新探」, 『南昌大学学报』, 2010.

### <기타자료>

廉丁三, 「동아시아 문명의 소통과 중국 문자」,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8.

## 【논문초록】

|   |                         |   |       |             |       |             |
|---|-------------------------|---|-------|-------------|-------|-------------|
| 키워드<br>Key Words  | 중문                      | 『說文解字』, 部首, 據形系聯, 共理相貫, 形相次, 義相次  |       |             |       |             |
|   | 영문                      | 『Shuowen Jiezi』, Radical(Chinese characters), The principle of arranging radicals based on their forms, The principle of making the meanings, Arrangement based on forms, Arrangement based on meanings |       |             |       |             |
| <div>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pe and Meaning in 540 Radicals<br/>of 『Shuowen Jiezi』<br/>: Focus on 14 Radicals of 「Volume 1」<br/><div>Kim Tai-Wan</div><p>『Shuowen Jiezi』 is a dictionary. A dictionary is, after all, a set of letters for the search of a particular letter. This means that it has an inevitable mission to promote the convenience of readers who use the dictionary.</p><p>In the first primary stage, Xu-Shen(許慎) succeeded in classifying 9,353 characters into 540 subjects, which are also known as radicals. In the second primary stage, the task of arranging these 540 radicals in a certain order is not easy. The method he chose is to primarily arrange the radicals in sequence based on their form. However, this alone is not enough to connect the 540 radicals, so he added meaning to the radicals, which is known as The principle of arranging radicals based on their forms(據形系聯) and The principle of making the meanings(共理相貫). Duan Yucai(段玉裁) of Qing Dynasty analyzed this as Arrangement based on forms(形相次) and Arrangement based on meanings(義相次).</p><p>This paper analyzes the 14 radicals of 『Shuowen Jiezi』 volume 1 in detail regarding forms and meaning. Therefore, it aims to clarify how each radical is related.</p><p>In the conclusion, we analyzed 14 radicals of relationships in terms of serial and parallel relationships, and based on this, we clarified how each relationship is organically related.</p></div> |                         |   |       |             |       |             |
| 저 자   | 김태완 / 金泰完 / Kim Tai-Wan |   |       |             |       |             |
| 논문작성일   | 투 고 일                   | 2023.01.27.   | 심 사 일 | 2023.03.06. | 게재확정일 | 2023.03.20. |